

기초 전자재 수요 하반기 들어 호조세 보일 듯

- 연간 철근 825만톤, 시멘트 4,500만톤, 레미콘 1.1억m³ 전망 -

전 병 수 | 콘크리트저널 발행인

상반기 건설자재시장은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였다. 철근을 비롯해 시멘트,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PHC)파일 등 기초 자재의 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3~8% 정도 감소하는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시장에 나타난 감소율은 훨씬 낮다. 대부분의 건설자재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늘어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재업계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런 일이다.

이처럼 비교적 상반기 기초 자재의 수요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 것은 기상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날씨다. 봄 가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 또는 눈 오는 날이 적었다. 지난 2/4분기의 경우 계절적인 성수기에다 날씨마저 자재를 출하하기 좋은 상태를 보였다. 비나 눈이 오면 거의 출하가 되지 않는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의 품목이 비교적 호조를 보였

다. 특히, PHC파일은 1/4분기의 좋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자재의 수요 심리도 덩달아 살아났다. 높은 주택 청약률이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호전된 수요 심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북상했다. 물론 이런 열기가 서울 중심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남 등 수도권 외곽의 분양 시장은 기초 자재의 수요를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서울 마곡지구나 하남, 위례지구 등에서는 꾸준하게 수요를 유발했다. 다만, 그동안 수도권 자재시장의 30~40%를 차지해 왔던 인천·부천 지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시장을 더 이상 달구지는 못했다.

상반기, 거래 가격 놓고 수급간 갈등

그러나 상반기에는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의 가격 인상을 놓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치열한 다툼이 발생했다. 이는 자재의 수요가 한계점에 이른 시장 상황을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감안하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자재업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건설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시공능력평가 기준 1~100위 업체 가운데 30여 개의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에 나서면서 자재업체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경우 연간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시멘트나 레미콘과는 달리 매월 가격을 결정한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 스크랩 가격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으레 파는 쪽은 비싸게, 사는 쪽은 싸게 사려고 한다. 건설사들은 철 스크랩 가격이 낮고 근본적으로 공급이 남아돈다는 수급 논리를 제시하며 제강사들을 압박했다. 제강사들은 경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건설사들을 설득했지만 목표를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주목할 점은 제강사들의 감산이다. 여름철 설비 보수에 따른 생산 감축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도 가격을 놓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시멘트의 경우 쌍용양회 등 생산 업체들이 지난 4월 15일자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사들은 가격 인상을 받아주기로 했으나 건설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반면에 건설사들은 한일, 쌍용, 아세아 등 주요 시멘트사들의 경영 실적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시멘트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기에 레미콘사들이 건설사들에게 레미콘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며 시장은 혼돈에 빠졌다. 레미콘사들은 가격 인상 명분의 하나로 시멘트 가격 상승을 제시했다. 건설사들은 시멘트 값 인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레미콘 가격을 올려 주느냐며 레미콘사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양측이 접촉은 하고 있지만 6월 말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부 품목은 공급 중단 가능성 있어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품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대부분의 품목이 연초 전망보다는 나은 시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격 분쟁이 심화될 경우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는 국지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멘트업체들이 공급 중단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레미콘업계는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적당한 명분을 찾아 3~4일 정도 공급을 중단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레미콘업계의 이런 가격 투쟁 방법은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가장 빠르고 높다는 점에서 버리기 어려운 카드다.

또 하나 하반기 자재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품질 문제다. 만약 품질 문제가 불거진다면 이는 레미콘 품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품질 골재로 인한 품질 사고가 우려된다. 골재가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부쉬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이유로 채석 허가를 않거나 유보함에 따라 우량 골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레미콘 및 아스콘의 품질로 연결된다.

건축 허가 등 선행 지표 양호

하반기 자재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면적 등 선행 지표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건축 허가면적 및 착공 면적, 건설 수주액 등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들은 양호하다. 이런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하반기 시장에 반영될 경우 시멘트 등 자재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현상은 본격적인 가을철 성수기인 추석을 지난 이후부터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런 분위기는 PHC파일 등 일부 품목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건축허가면적을 보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전국 건축허가면적은 4,372만 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8%나 늘어났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건설자재의 수요 유발 효과가 큰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무려 49.3%나 증가한 1,910만 5,000㎡에 달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또한 27.7% 늘어난 10만 6,509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대형 현장 중심으로 수요 꾸준해

철강재의 경우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유통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다. 그러나 수요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철근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193만 5,000t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 전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철근(만t)	830	800	825
시멘트(만t)	4,510	4,400	4,500
레미콘(만㎡)	10,700	10,000	11,000
PHC파일(만t)	520	460	440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철근 수요는 작년보다 3% 가량 늘어난 825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과 함께 H형강, 강관 등 건설용 철강재의 수요도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멘트 수요도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쌍용양회 등 시멘트사들이 공급한 양은 1,329만 9,000t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3만 7,000t에 불과했다. 작년보다 15.2%나 줄었다. 이 정도의 양이라면 내수시장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연말까지 수요도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어난 4,500만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슬래그 시멘트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수요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슬래그 시멘트가 레미콘사들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되는 데다 콘크리트 제조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미콘은 시멘트와 비슷한 수요 패턴을 보이며 연말까지 1억 1,000만㎡ 정도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PHC파일도 비교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PHC파일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255만 8,300t이 출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한 수치이지만 작년의 상황이 워낙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실적이다. 특히, 하남과 위례 등 수도권 대형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연말까지 440만t 이상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판로 지원에 따라 공공 시장을 차지한 중소 업체들과 민수 시장에만 의존해야 하는 대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현장에 따라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들의 판매 전략에 따라 가격에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CERIK